



08-01 (통권 279호)

2008.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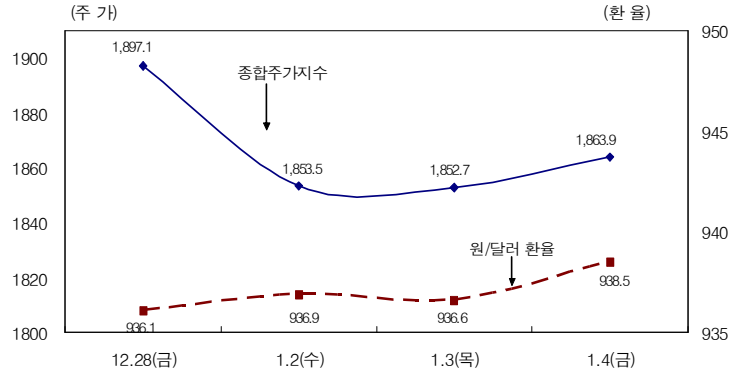
韓國經濟週評



■ 2008년 해외 10대 트렌드

Better than
the Best!

週間 主要 經濟 指標 (12.28~1.4)



차 례

주요 경제 현안	1
□ 2008년 해외 10대 트렌드	1
주간 경제 동향	26
□ 실물 부문 : 11월 산업생산 견조한 증가세	26
□ 금융 부문 : 미국 신용경색 우려감 지속	27

□ 본 자료는 CEO들을 위해 작성한 주간별 경제 경영 주요 현안에 대한 설명 자료입니다.
 □ 본 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인용 또는 전재하시기 위해서는 본 연구원의 허락을 얻어야 하며, 보고서 내용에 대한 문의는 아래와 같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괄 : 유병규 산업전략본부장 (3669-4032, bkyoo@hri.co.kr)
- 거시경제실 : 표한형 연구위원 (3669-4131, raisosa@hri.co.kr)
- 강대창 연구위원 (3669-4457, dkang@hri.co.kr)
- 한상곤 연구위원 (3669-4120, sghan49@hri.co.kr)
- 지식산업실 : 예상한 연구위원 (3669-4181, syeahk@hri.co.kr)
- 임상수 연구위원 (3669-4125, happylims@hri.co.kr)
- 기업전략실 : 이철선 연구위원 (3669-4128, cslee@hri.co.kr)
- 이주량 연구위원 (3669-4334, jryanglee@hri.co.kr)
- 이만용 연구위원 (3669-4123, danieli@hri.co.kr)
- 동북아연구센터 : 김영근 연구위원 (3669-4112, kimyg@hri.co.kr)
- 컨설팅본부 : 박태일 수석연구위원 (3669-4008, tipark@hri.co.kr)

Executive Summary

□ 2008년 해외 10대 트렌드

1. 개요

현대경제연구원은 국내외 자료를 토대로 2008년에 새롭게 나타나거나 보다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해외 정치, 경제, 산업, 경영 분야의 10대 트렌드를 선정하였다.

2. 2008년 해외 10대 트렌드

(정치)

① 글로벌 뉴리더십의 대두

2008년에는 프랑스, 독일, 영국 등 '유럽 빅3'의 지도자들의 '실용주의' 리더십과 미국 대통령 선거전에서 등장할 '파격'의 리더십이 세계의 주목을 받게 될 전망이다. 유럽은 과거 블레어-시라크-슈뢰더가 이끌던 정치·외교 축이 브라운-사르코지-메르켈의 50대 신세대 실용주의 리더십으로 완전히 재편될 것이다. 한편 미국은 11월4일 본선거에서 민주당 후보가 당선될 경우 힐러리 여성대통령 혹은 오바마 흑인대통령이라는 기존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대통령의 리더십을 맞게되는 파격의 리더십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② 동북아의 새로운 질서 구축

동북아 지역은 이념적인 대립보다는 국가 이익을 바탕으로 한 실용주의적 정책 추진으로 역내 경제·안보 협력 공간의 외연이 확대되어 갈 것이다. 북핵 문제 진전과 일본의 후쿠다 내각 등장으로 미일의 대북 정책이 유연해짐에 따라 북미 및 북일 관계의 호전은 물론 동북아의 화해 협력 모드 강화가 기대된다. 남북 관계 또한 2007년 남북정상선언의 구체화 및 이행을 통해 법·제도적 개선 및 군사적 긴장 완화로 한반도 긴장 완화에 진전이 있을 것이다. 중일 관계는 방중 등을 통한 후쿠다 총리의 적극적인 안보·경제협력 추진 의지가 엿보여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한편 중국은 국내 기반을 공고히 한 후진타오 주석이 푸틴 정권이 주도하는 러시아와 공조를 확대하여 미국 주도의 동북아 질서 체제를 견제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 결과 대북 정치경제적 지원이 확대될 전망으로 북중·북러 관계의 강화가 보다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동북아 역내 에너지 네트워크 구축 사업, 자원 개발 및 도입 사업 등 호혜적인 경험을 통한 동북아 지역 국가간 상호 협력이 진전될 것으로 보인다.

(경제)

③ Great Circle : 고대 문화권(중국, 인도, 중동 등)의 복권

풍부한 인구와 자원을 바탕으로 고도성장을 지속하고 있는 중국(황하문명)과 인도(인더스문명), 고유가로 국부가 증대되고 있는 중동(메소포타미아문명) 등 고대 문화권

경제가 재부상하고 있다. 중국과 인도는 2050년경에는 유럽 국가들의 경제규모를 추월하여 미국, 일본, 브라질, 러시아와 함께 세계 6대 경제대국이 될 전망이다. 특히 세계 인구의 1/3 이상이 인도와 중국에 거주하고 있어 일정 수준의 소득 수준에 이를 경우 이들 국가의 내수 시장이 세계 경제 성장을 견인할 것이다. 특히 세계 석유 확인 매장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중동 국가들의 경우 향후에도 OPEC의 의사결정을 주도하며 석유 수출을 통해 막대한 오일 머니를 축적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이를 바탕으로 세계 경제 및 금융 시장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새로운 세계 경제의 축으로 부상할 것으로 판단된다.

④ 유동성 패러독스와 달러화 위상의 약화

글로벌 유동성이 풍부함에도 불구하고 미국 주택대출관련 파생금융상품 등의 투자 손실 규모가 급증함에 따라 미국을 중심으로 선진국 금융 시장에 신용 경색 리스크가 높아지고 있다. 미국 연방은행이 금리 인하와 유동성 공급 등 적극적인 신용 경색 방지 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그 실효성의 한계로 신용 경색이 상당기간 지속될 전망이다. 또 미국의 쌍둥이 적자가 이어지고 주택경기 침체에 따르는 경제 펀더멘탈이 취약해짐에 따라 달러화 약세 현상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걸프 연안 산유국들이 달러화 페그제를 폐지하거나 원유 수출 대금 및 외화 보유자산의 다변화 추세가 지속된다면, 급격한 달러화 약세로 달러화의 위상이 심각하게 추락할 우려가 있다.

⑤ 제3의 전쟁 가열 : 에너지, 자원 가격 불안 및 개발 경쟁 격화

최근 공업화를 통한 고성장 전략을 취하고 있는 신흥공업국가들의 에너지와 원자재 수요가 급증하여, 국제 유가 및 원자재 가격이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향후에도 중국과 인도 등 신흥 개도국의 고성장으로 인해 세계 원유 및 원자재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신흥 개도국들은 안정적인 자원 확보를 고도성장 지속을 위한 필수조건으로 여기고 공격적인 해외 자원 확보 전략을 추진할 것이다. 결국, 지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에너지와 자원 가격은 신흥 개발도상국들의 자원 확보 경쟁으로 또 다시 상승하게 되는 악순환 구조에 빠질 수 있다.

(산업)

⑥ Green Economy 확장

2008년에는 양적 성장 중심의 경제에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중시하는 녹색경제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이 탈리기후회의에서 온실가스 감축에 동참하는 입장으로 선회하여 UN의 환경규제 압력이 심화되고, EU 지역 또한 환경 규제를 강화하는 추세이므로 전세계적인 환경 규제 압력이 가속화될 것이다.

환경에 대한 관심 증대 속에 친환경 제품에 대한 선호가 강한 'Green Consumer'계층도 대두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산업에서는 IT 기술과 환경이 결합된 'Green IT' 등이 새로운 유망산업으로서 블루 오션으로 떠오르고 있다. 한편 녹색경제의 가속화는 폐기물을 재활용함으로써 생산 비용 절감 및 자원 활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Re-cycle technology의 발전을 유도할 것이며, 화석에너지에 대한 대체 에너지 개발과 이의 활용도 증대를 초래할 것으로 기대된다.

⑦ 인간친화형 제4세대 로봇 혁명의 전개

급격한 기술발전으로 2008년에는 인간친화형 제4세대 로봇시대가 본격 개막될 것으로 기대된다. 독신 가정의 증대, 고령화 등에 의해 청소, 심부름, 엔터테인먼트 등 개인용 서비스 로봇의 보급이 확대될 것이다. 또 최근 사회복지 수요 증대에 따라 의료, 장애인 보조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로봇의 수요가 증대하면서 로봇의 사회적 활용도도 증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IT, BT, NT, ST 등의 첨단기술과 융합하여 군사용이나 의료용 마이크로 로봇 탄생이 확산되는 것과 같이 로봇과 첨단 신기술의 융합이 가속화될 것이다. 산업용 로봇의 경우 산업 전반으로 활용의 폭이 넓어질 것이며, 개발도상국에서의 수요 증대로 새로운 발전의 전기를 마련할 것이다.

⑧ 우주시대의 본격 개막

미국과 러시아의 달 영구 유인 우주기지 건설 계획 등 선진국들의 우주개발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중국, 인도, 한국 등이 달 탐사 계획을 현실화시키고 있어 우주개발의 춘추전국시대가 개막될 전망이다. 한편, 우주개발을 통한 미래 에너지원 확보 경쟁이 민간기업 주도하에 이루어지면서 민간주도의 우주개발에 대한 新Gold-rush 현상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막대한 부를 창출한 개인과 기업들이 우주를 돈벌이 장소로 인식하면서 관련 기술에 대한 투자와 참여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각국 정부는 점차 단순한 우주개발 주체에서 벗어나 우주 식민지 통치를 위한 법률 제정 등 질서 유지를 위한 관리자 또는 지원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

(경영)

⑨ 新소비문화의 등장

전 세계적인 경제성장의 지속으로 중산층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환경위기에 대한 경각심 확산과 IT 산업의 발달 등으로 2008년에는 新소비문화가 등장 또는 확산될 것이다. 우선 전 세계인들에게 자신들의 부와 지위를 소비를 통해 적극적으로 표출하고자 하는 소비행태 즉 '과시적 소비(conspicuous consumption)'가 확산

될 것이다. 이러한 과시적 소비의 확산과 더불어 일반 제품에서도 명품을 찾고자하는 소비 심리가 높아지면서 모든 '상품의 명품화(Premiumization)'가 진전될 것이다. 반면 소비자들의 상품에 대한 충성심이 전 영역에서 감소하면서 찰나의 소비문화(Snack Culture)'가 보편화될 것이다. 한편 환경 친화적인 제품의 소비가 다른 일반 소비자들로부터 해당 소비자를 구분 짓는 또 다른 상징으로 작용하는 'Eco-Iconic 현상'이 일반화될 것이다. 컴퓨터를 이용하여 디지털 공간에서 만들어 본 창작물을 현실에서 실현해 보고자 하는 욕구를 증대시킴으로써 '디지털 창조물의 현실화(Make it yourself)' 현상도 부상할 것이다. 인터넷과 IT 산업의 발달은 소비자의 수요를 분이나 초 단위로 나누어 구별하고 이에 맞춘 다양한 가격의 서비스 제공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이로서 '촌각(寸刻)에 의한 시장 차별화(On-demand Economy)가 이루어질 것이다.

⑩ Long Jump 전략의 확산

2008년에는 기업들의 신성장동력 발굴과 신사업 확장 전략이 기존사업과 연관이 많은 지근거리 위주의 Local Jump 전략에서, 기존사업과 연관이 적거나 전혀 없는 원거리 위주의 Long Jump 전략으로 변화될 전망이다. 기존 산업의 경쟁 포화로 완전히 새로운 사업의 필요성이 확대되고,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사업간 경계가 약화되고 이종 사업간의 물리적 거리가 가까워지면서 Long Jump 전략이 보다 수월해 질 것이다. 특히 비용 절감과 시너지 창출이라는 대명제 하에서 M&A가 더욱 활성화되는 것도, 현사업과 무관한 기존 기업이나 발판 기업의 인수를 촉진시켜 원거리 산업으로의 진입을 가속화시킬 것이다. 더욱이 미래 사업으로 친환경·에너지 등이 촉망받으면서 다양한 배경의 기업들이 기존 사업 영역과 관계없이 이 분야에 진출하려는 사례가 많아 Long Jump 전략의 확산이 예견된다. 결국 2008년에는 Long Jump 전략이 기업의 생존과 번영을 위한 필수요건이 될 것이다.

3. 시사점 및 대응 방안

2008년에 예상되는 해외 10대 트렌드는 정부와 기업 모두에게 위협 요인이자 기회 요인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정부와 기업은 부정적인 영향을 극복하는 한편 기회 요인의 적극적인 활용을 통해 국내 경제와 기업의 지속 성장이 가능하도록 새로운 정책과 경영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

(정책적 시사점)

우선 정부는 **첫째 북한의 동북아 경제권 편입을 위한 동북아 국가의 적극적인 다자 협력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우선 북한을 동북아 경제 협력 체제 속으로 유도하기 위한 중국, 일본, 러시아, 한국의 공동 협력 체제 구축이 시급하다. 아울러 동북아 평화체제를 바탕으로 경제 협력 활성화를 위한 한국, 북한, 중국, 일본, 러시아의 다자간 협력 체제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둘째 對중동 경제 협력 강화 전략을 추진해야 한다. 정부는 對중동 통상 확대를 위해 GCC(페르시아만안협력회의; Gulf Cooperation Council)국가들과의 FTA 체결 등 적극적인 경제 협력 강화 전략을 추진하여 새로운 시장을 확보해야 한다.

셋째 아시아권 국가들과의 통화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달러화 약세와 환율 변동성 리스크 축소를 위해 동아시아 역내 통화협의기구를 구축하고 참여국간 거시 경제 정책 및 통화정책 조정 등을 통해 동아시아 국가간 통화 바스켓 제도를 구성하는 방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또, 외환 보유고 및 무역결제통화의 다변화 등도 병행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국가 안보 차원의 중장기 에너지 자원 확보 전략이 마련되어야 한다. 자원 외교 강화로 에너지 공급의 안정화를 도모하고 적극적인 해외유전 개발 및 확보 전략의 추진을 통해 중장기 에너지 자원 확보에 힘써야 한다. 또, IT 산업, 서비스업 관광업과 같이 굴뚝 없는 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육성과 에너지 절감에 대한 인센티브제도 도입 등 새로운 에너지 절약 전략이 마련되어야 한다.

다섯째 로봇, 우주개발 등 새로운 산업 발전의 기반을 확고히 해야 한다. 로봇의 경우는 정부의 사회복지 전략 차원에서 조달 시장을 확대하거나 표준화된 규약 마련 등 발전 기반의 확충이 필요하다. 한편, 우주개발의 경우는 새로운 성장 분야로 선정, 정부와 민간의 파트너십 강화나 로켓 산업의 집중 육성 등 성장 전략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기업의 대응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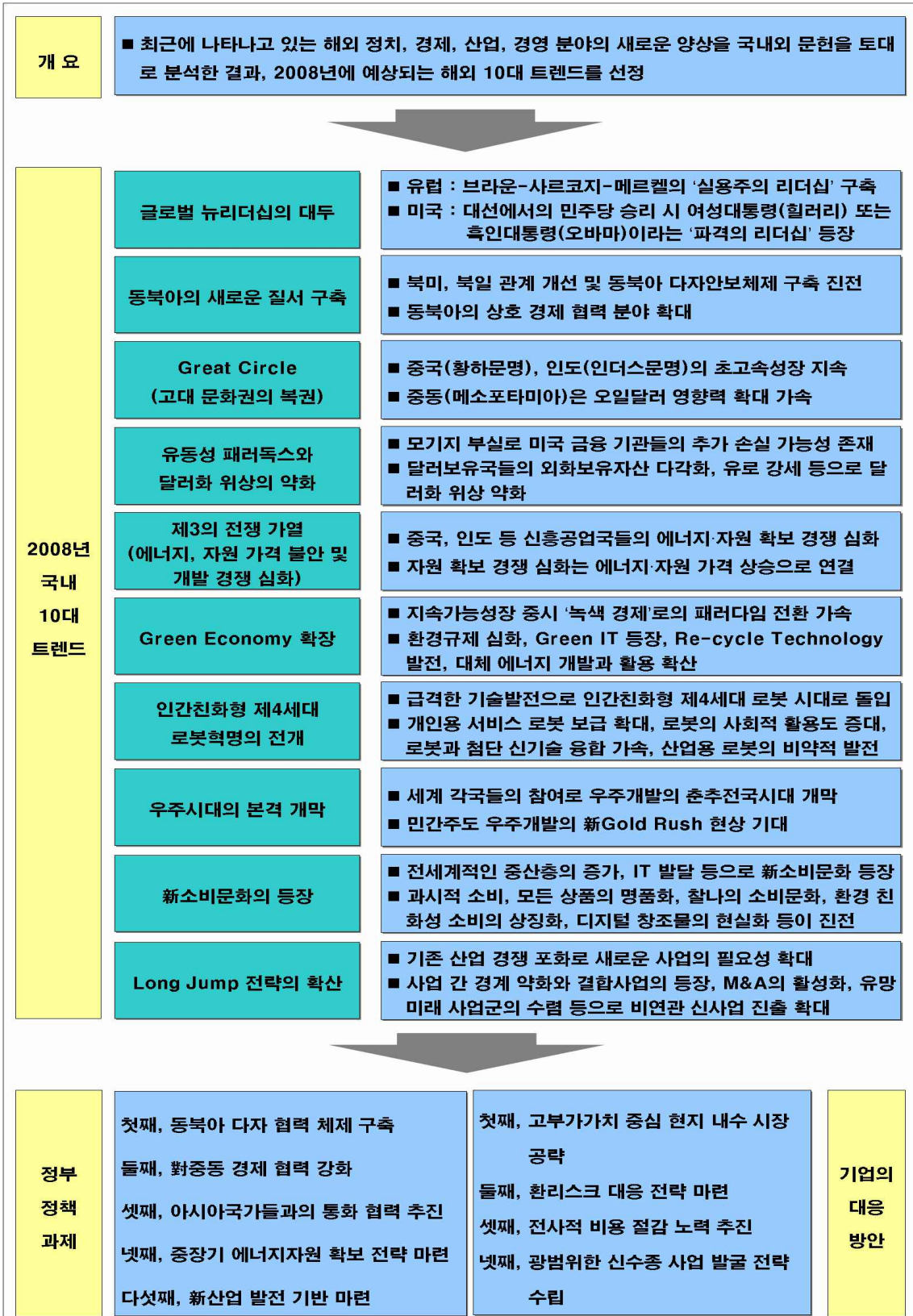
기업들도 새로운 트렌드 변화에 대응하여 **첫째 고부가가치 분야를 중심으로 한 해외 시장 진출 전략을 추진해야 한다.** 신흥개도국들을 중심으로 중산층이 급증하고 있어 이들 지역의 진출에 있어서는 고부가가치 상품을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축하여 중상류 소비 계층 중심 현지 내수 시장 공략이 필요하다.

둘째 환리스크 대응 전략 마련이 시급하다. 기업은 원화 가치 상승에 따른 환위험 리스크를 축소시키기 위해 결제 통화의 다변화, 선물 시장 등을 통한 적극적인 환위험 헤지 방안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셋째 미국 경기둔화와 달러화 약세와 같은 해외 여건에 대비할 전사적인 리스크 대응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전사적 리스크 관리 대책 수립 및 점검, 원가 관리 시스템 구축, 전사적인 비용 절감 캠페인 실시, 장기 계약 확대 등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넷째 광범위한 신수종 사업 발굴 노력이 구체적으로 실현되어야 한다. 새로운 산업 및 소비트렌드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통해 유망 신사업 분야를 발굴하고, 이를 적극 추진할 수 있는 기업 내부 환경 조성이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유망한 미래 사업군들의 수렴화 현상이 진행되고 있고 사업간 경계가 약화되는 등 신수종 사업 진출 환경이 급변하고 있어 원거리 사업에 진출할 Long Jump 전략을 충분히 활용해야 할 것이다.

< 2008년 10대 해외 트렌드 >



1. 개요

○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해외 정치, 경제, 산업, 경영 분야의 새로운 양상을 국내외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2008년에 각 부문에서 주요 이슈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10대 트렌드를 선정함

- 2008년 해외 정치 부분에서는 글로벌 뉴리더십의 대두, 동북아의 새로운 질서 구축을 선정함
- 경제 부문에서는 중국, 인도, 중동 등 고대 문화권의 복권을 중심으로 한 Great Circle과 유동성 패러독스와 달러화 위상의 약화, 마지막으로 에너지, 자원 가격 불안 및 개발 경쟁이 심화되는 이른바 제3의 전쟁 가열을 들 수 있음
- 산업 부문에서는 Green Economy의 확장, 인간친화형 제4세대 로봇 혁명의 전개, 우주시대의 본격 개막을 새로운 트렌드로 제시하였음
- 경영 부문에서는 新소비문화의 등장, Long Jump 전략의 확산이 주요 트렌드가 될 것으로 전망됨

2. 2008년 해외 10대 트렌드

1) 정치

① 글로벌 뉴리더십의 대두

○ (새로운 리더십의 등장) 올해에는 프랑스·독일·영국 등 '유럽 빅3'의 지도자들의 '실용주의' 리더십과, 미국 대통령 선거전에서 등장할 '파격'의 리더십이 세계의 주목을 받게 될 것임

- 올해는 2007년 5월 프랑스 대통령에 취임한 니콜라스 사르코지, 2007년 6월 영국 총리에 오른 고든 브라운, 지난 2005년 11월 이후 독일을 이끌고 있는 앙겔라 메르켈 총리 등 '유럽 빅3'의 실용주의 리더십이 유럽은 물론 세계의 정치·경제에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것임

- 최초의 여성대통령, 흑인대통령 당선 가능성으로 어느 때보다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는 미국의 제44대 대통령 선거전이 1월 3일 아이오와 주 코커스(당원대회)를 시작으로 본격 접화되어 11월 본선거까지 1년 가까이 이어짐
· 미국에서 여성 또는 흑인대통령이 만들어진다면, 그 자체가 미국뿐 아니라 전세계에 리더십의 '파격'이 이루어지는 셈임

○ (실용주의 리더십) 유럽은 과거 블레어-시라크-슈뢰더가 이끌던 정치·외교 축이 브라운-사르코지-메르켈의 50대 신세대 실용주의 리더십으로 완전히 재편됨

- 이들은 모두 50대 전후 세대로 성장 위주의 경제 정책을 지지하며 외교 문제에서 실익을 강조하는 신세대 실용주의 정치가로 평가받음
· 기업의 CEO처럼 세일즈 외교를 펼치며, 전임 지도자들과 달리 이념적 지향으로부터 훨씬 자유로운 리더십을 가지고 있음
· 실용주의적 리더십을 바탕으로 '강한 유럽'을 표방, 미국은 물론 전세계에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할 것임

- 메르켈 총리는 독일 최초의 여성 출신, 동독 출신으로서 독일을 '유럽의 병자'에서 '유럽의 성장엔진'으로 바꾸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 통일 후유증과 과도한 복지에 발목을 잡혀 '독일병'을 앓고 있던 독일에 과감한 메스를 가해 '독일의 대처'라고도 불림

- 동독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과 공공 부문의 민영화, 기업 규제 완화 등 시장 경제와 성장을 중시하는 신자유주의적 개혁을 성공적으로 수행, 독일에서 드물게 '집권 뒤 지지율이 올라간 총리'가 됨
- '성장'을 통해 '강한 프랑스'를 만들겠다는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은 '생각하는 나라' 프랑스를 '일하는 나라' 프랑스로 바꾸고 있음
 - 여당 소속이면서도, 전임자 자크 시라크의 반미-온건보수 노선에서 벗어나 대미 협력과 시장 중시 개혁, 철저한 실용주의를 표방하고 나섬
 - 사르코지는 5월 취임 이후, 특별연금법안을 마련하는 등 공공부문 개혁을 과감히 밀어붙여, '리틀 나폴레옹'이나 '차르코지' 등의 별명도 붙음
 - 그는 5년간 공무원 10만 명을 감원하겠다고 하며 비대해진 공무원 조직을 줄여나가고, '더 일하고 더 벌자'라는 모토로 '주35시간 근무제'를 초과해 받은 수당에 대해서는 세금 및 사회보장기금을 물리지 않는 새 정책을 도입하는 등 '프랑스병' 수술에 적극 나섬
- 고든 브라운 영국 총리도 친미 실용주의 노선과 성장 위주의 친 시장적 경제 정책을 유지하고 있음
 - 왕실 권력을 국민에게 되돌려줘 정치의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야심을 가짐
 - 다만 '부시의 푸들'이란 별명을 가진 블레어와 차별화를 위해 워싱턴과 거리두기를 시도할 것이 예상되기도 하지만 기본적인 친미 전통을 벗어나지는 않을 것임
- (파격의 리더십) 11월 4일 본선거에서 민주당 후보가 당선될 경우, 미국은 기존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대통령(힐러리 여성대통령 혹은 오바마 흑인대통령)의 리더십을 경험하게 될 것임
 - '세계의 대통령'이라고 불리는 미국 대통령인 만큼, 미국 대통령이 여성 혹은 흑인이 될 경우 이는 세계의 리더십에도 의미 있는 변화를 줄 것임
 - 지난해 말 베나지르 부토 전 파키스탄 총리의 희생으로 촉발된 여성 지도자에 대한 관심과 함께 올해에도 여성 지도자의 약진이 예상됨¹⁾

1) 현직 여성 지도자, 즉 '마담 프레지던트'들은 메르켈 독일 총리(2005년 집권), 헬렌 클라크 뉴질랜드 총리(2000년 집권, 2005년 3선 성공), 메리 매컬리스 아일랜드 총리(1997년 집권, 2004년 재선), 미첼 바첼렛 칠레 대통령(2006년 집권), 크리스티나 페르난데스 아르헨티나 대통령(2007년 집권), 프라티바 파틸 인도 대통령(2007년 집권), 비케-프라이베르가 라트비아 대통령(1999년 집권, 2003년 재선), 글로리아 아로요 필리핀 대통령(2001년 집권, 2004년 재선), 루이사 디오구 모잠비크 총리(2004년 집권), 엘런 존슨 설리프 라이베리아 대통령(2005년 집권), 타르야 할로넨 핀란드 대통령(2000년 집권, 2006년 재선), 포샤 심프슨밀러 자메이카 총리(2006년 집권), 미슐린 칼미레이 스위스 대통령(임기 1년 윤번제) 등 총 13명임.

② 동북아의 새로운 질서 구축

○ (개관) 동북아 평화 체제 구축과 동북아 경제협력 증진의 선순환적 구조 기반이 마련되어 안보·경제 협력의 상호의존이 심화되는 과정으로, 동북아에서 새로운 질서 구축 방안이 모색될 것임

- 북핵 문제 진전 및 북한의 대외 관계 강화 움직임으로 경제 외적 불안 요인이 완화되어 한반도 평화체제 기반 및 대외 개방에 대한 기대가 높아짐으로써 동북아 질서에 긍정적으로 작용
 - 북핵 진전과 부시 행정부 및 후쿠다 내각의 유연한 대북 정책 추진으로 북미 및 북일 관계에도 일정한 진전이 기대되며, 남북·중일·북중·북러 관계 또한 개선 논의가 진행되고 있어 동북아의 새 질서 기대감 고조
- 남북 관계 및 6자회담의 진전 등 대내외적 안보·경제 환경 변화에 따라 동북아 경제 협력에 대한 논의 또한 점차적 확대 및 활성화 추세

○ (동북아의 경제·안보 협력 관계 개선) 냉전 종식 후 동북아 질서는 이념적인 분리보다는 국가이익을 바탕으로 한 실용주의적 정책 추진으로 역내 경제·안보 협력공간의 외연이 확대되고 있음

- 동북아 역내 국가(특히 한·중·일)들은 ASEAN이라는 지역경제협력기구를 매개로 한 상호보완적 분업구조에 따라²⁾, 역내 교역이 빠르게 증가하는 기능적 통합 추세를 보이고 있음
 - 제11차 ASEAN+3 정상회의(2007. 11. 20)에서 정치·안보, 경제, 사회·문화 분야에서 참가국의 상호협력을 높이 평가하고, 앞으로 역내 협력의 장기적 목표인 동아시아공동체 형성을 위해 다각적 방안을 강구해 나가기로 합의
- 다만 북한의 핵 불능화와 핵 프로그램 신고 수준 등에 대한 북미 간 및 6자회담 회원국들 간의 입장차가 여전히 존재하여 동북아의 안보 협력 관계 및 다자안보협력체 구성에 관한 논의 지속이 필요

2) 한중일 3국과 ASEAN과의 FTA 교섭 현황을 살펴보면, 중-ASEAN FTA 발효(2006), 한-ASEAN FTA 상품협정 발효(2007. 6) 및 서비스협정 서명(2007. 11), 일-ASEAN EPA(경제연계협정) 체결(2007. 11)

- 한반도 평화체제에 대한 논의가 정체될 경우, 동북아 안보 질서는 물론 경제 협력의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도 존재

○ (동북아의 새질서 구축 기대) 북미 및 북일 관계가 개선되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통한 안정적인 동북아 질서 유지가 기대되며, 특히 동북아의 상호 경제 협력 분야가 확대될 전망

- 동북아 협력 관계 강화: 북핵 진전과 일본의 후쿠다 내각 등장으로 미·일의 대북 정책이 유연해짐에 따라 북미 및 북일 관계의 호전은 물론, 동북아의 화해·협력 모드 강화 기대
 - 북미 관계 : 미국의 대북 정책이 중동 문제의 장기화 탈피와 2008년 대선을 겨냥한 북핵 문제 우선 해결에 역점을 둠으로써 강경 일변도에서 대화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어, 북미수교에 긍정적인 변화가 기대
 - 북일 관계 : 역시, 후쿠다 총리의 유연한 대북 정책을 바탕으로 북일 국교 정상화를 위한 비공식 실무협회가 추진 중에 있어 개선될 전망
 - 남북 관계 : 2007 남북정상선언의 구체화 및 이행을 통해 법·제도적 개선 및 군사적 긴장이 완화되어, 한반도 문제 해결에 진전 기대
 - 중일 관계 : 최근 후쿠다 총리의 방중 등을 통해 적극적인 안보·경제 협력 추진의 의지를 보이고 있어, 크게 개선될 전망으로 미일동맹 관계만이 중시된 정책에서 탈피 기대
 - 북중·북러 관계 : 중국은 국내 기반을 공고히 한 후진타오 주석이 푸틴이 정권을 주도하는 러시아와의 공조 확대를 통해, 동북아 질서 미국 주도를 견제하는 과정에서 대북 정치·경제적 지원이 확대될 전망으로 북중·북러 관계의 강화가 본격화
- 동북아 다자안보체제 구축에 진전: 북핵 해결 과정에서 한국의 중재자 및 창의적 역할, 나아가 주도적 역할 증대 기대
 - 굳건한 한미 동맹 하에 중국·일본·러시아 등 주변국과도 미래지향적인 동반자 관계가 구축되고, 6자회담의 제도화를 바탕으로 한반도 및 동북아의 다자 안보협력체로 발전되는 기반이 마련될 전망
 - 다만 북한의 핵 불능화 및 핵 폐기 이행이 지연될 경우, 대북 상응조치는 물론 대북 지원과 테러지원국 해제 논의에 걸림돌로 작용하여 동북아 질서 유지에 부정적 영향이 우려됨

- **동북아의 상호 경제 협력 분야 확대:** 역내 에너지 네트워크 구축 사업, 자원 개발 및 도입 사업 등 호혜적 경협을 통한 동북아의 상호 경협을 위한 기반 마련
 -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이 지속되면 다자안보체제가 형성되고, 이에 따라 안보적 갈등 상황이 해소됨으로써, ASEAN+3(한·중·일) 정상회담을 바탕으로 동북아시아 경제 협력의 진전에 기여할 것임
 - 특히 남·북·러 철도 협력³⁾의 모멘텀을 유지해 나갈 경우, 중국을 포함한 동북아 철도 협력 기반 조성 사업이 전개될 것으로 기대되며, 이는 동북아의 상호 경제 협력 인프라 조성에 기여할 전망
 - 다만 한중일 FTA가 체결되고 러시아를 포함한 동북아 협력이 강화될 경우, 북한의 고립도가 오히려 심화되면서 경제뿐만 아니라 외교·안보적 요인에 따른 정치적 불안정성 또한 확대될 가능성이 있음

○ (시사점) 북한의 동북아 경제권 편입을 위한 협력 추진 및 동북아 국가와의 공조 체제 활용 방안 모색

- **북한의 동북아 경제권 편입을 위한 협력 추진:** 남한을 비롯한 중국, 일본, 러시아가 북한을 동북아 경제 협력으로 유도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이 요구됨
 - 향후 남북경제공동체 추진은 물론, 남북한 FTA 추진을 통해 동북아 경제 협력체제 진입 및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등 북한의 국제금융·무역체제 복귀를 위한 미국의 적극적인 협력 유도
- **동북아 국가의 적극적인 다자 협력 모색:** 동북아 평화체제를 바탕으로 경제 협력의 활성화를 위해 남·북·중·일·러 다자 협력을 확대
 - 우선적으로 현재 중국, 러시아, 북한이 각각 추진하고 있는 접경지역 개발 사업을 활성화 하고, 공동협력을 통해서 동북아 경제 협력 가능성 제고

3) 북한이 한반도중단철도(TKR)와 시베리아횡단철도(TSR) 연결을 위한 남북한 및 러시아간 3자협상에 동의했다고 '러시아의 소리' 방송이 보도(12. 15). 『연합뉴스』 2007. 12. 15.

2) 경제

③ Great Circle : 고대 문화권(중국, 인도, 중동 등)의 복권

○ (현상) 풍부한 인구와 자원을 바탕으로 고도성장을 지속하고 있는 중국(황하 문명) 및 인도(인더스 문명) 경제와, 고유가로 국부가 증대되고 있는 중동(메소포타미아 문명) 등 과거 고대 문화권 경제가 재부상하고 있음

- 인도와 중국은 9~11%대의 높은 성장률로 전 세계의 경제 성장을 주도하고 있으며, GCC⁴⁾로 대표되는 중동국가들은 축적된 오일머니로 국부펀드를 조성하여 전 세계 금융 시장의 흐름을 좌우하고 있음
- 인도와 중국, GCC국가들이 전 세계 인구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6년을 기준으로 할 경우 각각 37.3%, 8.8%에 이르고 있으며, 세계 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00년과 비교하여 1.5~2배 정도 확대되었음

< Great circle 지역의 세계 경제에서의 위상 >

	중 국		인 도		GCC	
	2000	2006	2000	2006	2000	2006
인구(백만명, %)	1,267.4 (20.7)	1,314.1 (19.9)	1,015.0 (16.6)	1,113.0 (16.9)	29.4 (0.5)	35.2 (0.5)
명목GDP(10억달러, %)	1,198.5 (3.8)	2,644.6 (5.5)	461.9 (1.5)	873.7 (1.8)	342.2 (1.1)	712.4 (1.5)
무역규모(10억달러, %)	474.4 (3.7)	1,761.1 (7.2)	93.0 (0.7)	307.8 (1.3)	239.2 (1.8)	658.2 (2.7)

자료 : IMF, UN.

주 : ()내는 전세계 대비 비중임.

○ (특징) 인도와 중국의 높은 성장잠재력을 바탕으로 한 초고속성장과 중동 산유국들의 고유가로 인한 구매력 증대 등으로 Great Circle 국가들의 글로벌 경제·금융시장에 대한 영향력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4) GCC(걸프협력회의)는 Gulf Cooperation Council의 약자로 걸프지역 6개 산유국(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쿠웨이트, 카타르, 바레인, 오만)의 정치·경제 협의체를 일컫음.

- **중국 및 인도의 경제 대국화** : 풍부한 인구와 자원을 바탕으로 중국과 인도 경제는 향후에도 높은 성장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세계 인구의 1/3 이상이 인도와 중국에 거주하고 있어, 일정 수준의 소득 수준에 이르게 되면 이들 국가의 내수 시장이 세계 경제 성장을 견인할 것임
 - Goldman Sachs(2003)는 2050년경에는 인도와 중국이 유럽 국가들의 경제 규모를 추월하여, 미국, 일본, 브라질, 러시아와 함께 세계 6대 경제국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

- **중동 오일 달러의 영향력 확대** : 세계 석유 확인매장량의 절반 이상을 중동 지역 국가들이 차지하고 있어⁵⁾, 이들의 석유 수출에 기반을 둔 경제적 영향력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 중동 지역 국가들은 향후에도 OPEC의 의사결정을 주도하며 석유 수출을 통해 막대한 오일 달러를 축적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바탕으로 세계 경제 및 금융 시장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전망됨
 - 2006년 GCC 국가들의 수출액은 4,214억 달러로 이는 국제원유가격이 하향 안정 추세를 보이던 2000년 1,643억 달러에 비해 약 2.6배 늘어난 규모
 - IMF에 따르면 2007년 상반기 현재 약 30개 국가들이 국부펀드를 운용하고 있으며(총 운용규모 2조 8,924억 달러 추정), 이 중 51%에 달하는 1조 4,750억 달러를 중동지역 국가들이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

- (시사점) 정부는 자원 부국인 GCC국가들과의 경제 협력을 강화해야 하며, 기업들도 이 지역에 대한 진출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임
 - **정부간 경제 협력 강화** : 정부는 對 중동 통상 확대를 위해 GCC국가들과의 FTA 체결을 적극적으로 고려해 볼 필요가 있으며, 다만 한중 FTA는 국내산업 피해 가능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 후 신중하게 접근하여야 함
 - **적극적인 기업 진출 추진** : 기업들 간의 컨소시엄 형태로 중동지역의 에너지 개발 부문 진출을 적극 고려하고, 중국과 인도시장에 대한 진출은 고부가가치 제품 생산을 통한 중상류 소비 계층 중심의 내수 시장 공략이 필요함

5) 2007년 1월 현재 세계 석유확인 매장량은 1조 3천억 배럴에 이르며 이 중 56.1%인 7천 억 배럴 가량이 중동지역에 분포되어 있음(EIA, "International Energy Outlook 2007").

④ 유동성 페러독스와 달러화 위상의 약화

○ (현상) 글로벌 유동성이 풍부함에도 불구하고 미국 주택대출관련 파생금융상품 투자 손실 규모 급증으로 인해 미국을 중심으로 선진국 금융 시장에 신용 경색 리스크가 높아지고 있음

- 지난 수년 동안의 세계적 저금리 기조로 글로벌 유동성은 풍부한 상태이나, 美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로 인해 주택대출관련 파생금융 상품에 투자했던 금융기관들의 대규모 손실이 발생하면서 신용 경색 위험이 높아짐
- 미국의 쌍둥이(경상수지 및 재정수지) 적자폭의 뚜렷한 개선이 없는 가운데 주택경기 침체에 따르는 경제 펀더멘탈이 취약해 질 것이라는 우려감이 팽배해지면서 달러화 약세가 지속중임

○ (특징) 美 연방은행이 금리 인하 등 적극적인 신용 경색 방지 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그 실효성이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어 달러화의 약세는 장기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 신용경색 우려감을 완화하기 위해 미 연방은행은 금리 인하와 유동성 공급을 동시에 고려하고 있음
 - 美 연방은행은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이 표면화된 2007년 8월 이후 연방 기금금리를 총 3차례에 걸쳐 1%p 내려 4.25%로 인하한데 이어 추가적인 금리인하를 검토하고 있음
 - 이와 동시에 미 연방준비제도 이사회는 경매방식의 TAF(Term Auction Facility)를 통한 유동성 공급도 계획하고 있음
 - ※ 경매방식의 TAF란 참가기관 및 담보조건은 재할인대출과 같이 예금은행(depository institutions) 및 국채·MBS·CDO 등으로 하며, 경매(auction) 방식을 통해 자금을 공급하는 방식으로 재할인대출과 달리 익명성이 보장됨

- 하지만, 모기지 부실관련 금융 기관들의 추가적인 손실 가능성이 높아 美 연방은행의 유동성공급에도 불구하고 신용경색 우려감은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 국제 금융 시장에서는 美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에 따른 금융 기관들의 손실이 최대 5,00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 모기지 관련 글로벌 손실 추정액 >

(단위: 억 달러)

	OECD	골드만삭스	도이치뱅크	UBS	RBS	무디스
손실추정액	3,000	4,000	4,000	4,800	5,000	2,250

자료 : Bloomberg.

- 한편, 달러화의 약세는 점진적으로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 주요 해외 투자은행들에 따르면 2008년 엔/달러 환율은 110엔을 하회하고, 유로/달러 환율은 1.45유로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하지만, 걸프 연안 산유국들의 달러화 페그제의 변경, 원유 수출대금 및 외화 보유자산의 다변화 추세가 지속된다면 급격한 달러화 약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시사점) 정부는 아시아권 국가들과의 통화 협력 노력을 강화하고, 기업들은 환위험 및 신용위험 관리에 대한 철저한 점검이 필요

- **아시아권 국가들과의 통화 협력 강화** : 아시아권 국가들과의 통화협력 노력을 강화하고 외환보유고 및 무역결제통화의 다변화 추진
 - 달러화 약세와 환율 변동성 리스크를 축소시키기 위하여 동아시아 국가간 통화 바스켓 제도를 구성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
- **환위험 리스크 축소** : 기업은 원화가치 상승에 따른 환위험 리스크를 축소시키기 위하여, 결제 통화의 다변화, 시장을 통한 적극적인 환위험 헤지에 주력해야 할 것임

⑤ 제3의 전쟁 가열 : 에너지, 자원 가격 불안 및 개발 경쟁 격화

○ (현상) 국제 유가 및 원자재가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공업화를 통한 고성장 전략을 펼치고 있는 신흥공업국가들에서의 에너지와 원자재 수요 급증으로 세계적인 자원 확보 경쟁이 더욱 심화될 전망

- 국제 유가가 급등하고 국제 원자재 가격도 크게 상승하는 등 에너지 및 자원 비용이 크게 증대됨
 - 12월 17일 현재 국제 원유 가격 기준이 되는 WTI 선물 가격은 배럴당 90 달러로 작년 말 61 달러에 비해 48% 상승하였고, 대표적인 국제 원자재 가격지수인 CRB 선물지수는 348로 작년 말 307에 비해 13% 상승함

< 최근 국제 유가 및 원자재 가격 추이 >

(단위 : 달러/배럴, p)

	2006	2007년											
		1	2	3	4	5	6	7	8	9	10	11	12.17
두바이유	56.7	53.2	58.6	63.1	64.8	63.1	66.4	69.4	67.7	76.6	81.2	83.9	86.5
WTI	61.1	58.1	61.8	65.9	65.7	64.0	70.7	78.2	74.0	81.7	94.5	88.7	90.2
CRB	307.3	301.2	312.4	316.9	312.7	311.5	315.7	324.1	308.8	333.7	351.0	339.8	348.0

자료 : 한국석유공사, 한국은행.

주 : 1) 2006년 자료는 연말 기준이며, 2007년 자료는 11월까지 월평균 자료임

2) CRB 선물지수는 대표적인 원자재 가격지수로서, 국제적으로 많이 거래되는 23개 비에너지 원자재 가격을 미국 상품조사국(Commodity Research Bureau, CRB)이 지수화하여 단순 평균한 값으로 1967년 100을 기준으로 함.

○ (특징) 향후에도 중국, 인도 등 신흥 공업국가들의 고성장에 따른 에너지 및 자원 확보 경쟁이 국제 유가 및 원자재 가격 상승을 가속화시키는 악순환이 지속될 것임

- 신흥 공업국가들의 고성장이 수요 견인 : 중국과 인도 등 신흥 개도국의 고성장으로 인해 세계 원유 및 원자재 수요가 급증함
 - 중국과 인도는 2006년에 각각 11.1%, 9.7%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했고, 2007년에도 11.9%, 8.9%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됨

- 2007년 상반기 중 세계 원유소비의 전년동기대비 증가분 중 상당 부분이 중국(약 41.1%)과 인도(약 19.8%)의 수요 증가에 기인하고 있음
- **자원 확보 경쟁** : 중국과 인도 등 신흥 개발도상국들은 원유와 원자재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안정적인 자원 확보를 고도성장 지속을 위한 사활적인 요건으로 여기고, 공격적으로 해외 자원 개발 투자를 확대하고 있음
 - **중국** : 에너지 부문에 대한 외국인의 자국 투자는 제한하는 반면, M&A를 통해 아프리카, 중앙아시아, 남미 등지의 해외 유전과 탄광 투자 확대
 - **인도** : M&A를 통해 안정적인 해외 석유 자원 공급선을 확보중이며, 나아가 대체에너지 분야 진출 및 해외 자원 개발에도 적극 나서고 있음⁶⁾
- **악순환 구조** : 이는 다시 에너지 및 자원 가격을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향후 상당 기간 「에너지·자원 가격 상승 → 신흥공업국들의 자원 확보 경쟁 → 가격 급등」의 악순환의 고리가 견고해질 것으로 예상됨
- (시사점) 단기적으로 에너지 및 자원의 가격 변동에 의한 리스크를 축소시키고,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에너지 및 자원 확보에 주력해야 함
 - **정부** : 에너지 이용 효율성 제고, 국가 안보 차원의 중장기 에너지 자원 확보 전략 수립에 주력해야 함
 - IT 산업, 서비스업, 관광업 등과 같이 굴뚝 없는 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육성, 에너지 절감에 대한 인센티브 도입, 자원외교 강화로 에너지 공급의 안정화 도모, 적극적인 해외유전 개발 및 확보 등을 추진해야 함
 - **기업** : 수익성 악화에 대비, 원자재 가격 변동 리스크 축소, 원자재 구매의 효율성 확보 등을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함
 - 이를 위해 비상 계획 수립 및 점검, 원가 관리 시스템 구축, 全社的인 비용 절감 캠페인 실시, 장기 계약 확대 등을 위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6) 중국은 2004년 해외투자 중 52.8%를, 인도는 2005년 해외투자 중 30.1%를 에너지 분야에 집중함.

3) 산업

⑥ Green Economy 확장

○ (녹색 경제로의 패러다임 전환 가속) 양적 성장 중심의 경제에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중시하는 '녹색 경제'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가속화될 것임

- **녹색 경제(Green Economy)⁷⁾** : '지속 가능한 개발'의 개념을 기반으로, 경제 활동에서 환경 보존에 따르는 비용과 편익을 고려하여 경제적 사회적 편익을 최적화하려는 경제의 한 형태를 말함

○ (전망) UN과 EU의 환경 규제 압력 심화, Green IT 보급 확대, Re-cycle 기술 발전, 대체 에너지 확산 등 녹색 경제가 확대될 것임

- **환경 규제 압력 심화** : 미국이 '발리 기후회의'에서 온실가스 감축에 대해 동참하는 입장으로 바뀌는 등 UN의 환경규제 압력이 심화되고 있으며 EU 지역 또한 환경 규제를 강화

· **UN** : 미국이 온실가스 감축에 동참함에 따라 탄소배출권 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기업 및 정부 차원의 노력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됨

· **EU** : REACH*와 RoHS*를 중심으로 환경 규제를 강화할 뿐 아니라 무역 장벽으로의 활용 등 환경 규제를 통한 경제적 이익 추구가 강화될 것임

* **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zation and Restriction of Chemicals** : 2007년 6월 시행된 EU의 화학물질 통합관리 제도로 제조되거나 수입되는 모든 화학물질은 사전 등록되어야 하며 유해성 테스트를 통해 등록되기 때문에 무역 장벽으로서의 역할이 예상됨

* **Restriction of Hazardous Substance** : EU에서 제정한 환경 규제로 전기 및 전자장비의 유해물질 사용을 제한한 것임

7)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환경 용어 참조.

- **Green IT** :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친환경 제품에 대한 선호가 강한 'Green Consumer' 계층이 대두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IT 산업 역시 IT 기술과 환경이 결합된 'Green IT'를 블루오션으로 간주하고 있는 추세임
 - 'Green IT'는 유해물질을 피하고 친환경적인 소재를 사용하며 에너지 효율적인 제품을 생산하는 최근의 트렌드를 말함
 - IT 시장 조사 업체인 Forrester Research(2007. 5)에 따르면 글로벌 기업 25%가 이미 'Green IT'를 명문화함

- **Re-cycle technology 발전** : 녹색경제의 가속화는 폐기물을 재활용함으로써 생산 비용 절감 및 자원 활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재생산 기술을 발전시킬 것으로 예상됨
 - 폐기물의 재활용을 전담하는 전문 폐기물 업체가 생겨나거나 회사 내에 폐기물 전담 부서가 신설되는 케이스가 많아질 것으로 전망

- **대체 에너지 확산** :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과 석유, 천연가스 가격의 상승으로 인해 화석 에너지를 대체할 수 있는 자원 개발에 관심을 둠
 - 현재 에너지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화석 연료를 대신하여 태양, 바람, 수소, 바이오 에너지 등의 대체 에너지 개발이 가속화될 전망
 - 특히 에탄올과 바이오 디젤 등의 개발로 옥수수 등과 같은 곡물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곡물 가격이 폭등할 것으로 예상

- (시사점) 기업은 신규 사업을 창출하는 기회로 활용하며, 정부는 환경 보호를 위한 기업의 행위에 세금 감면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함

- **신규 사업 창출의 기회** : 녹색 경제는 하이브리드 차, 해수 담수화, 재생 에너지, 환경 컨설팅 등과 같은 신규 사업을 창출할 것으로 예상되며, 따라서 기업은 녹색 경제에 대한 충분한 분석을 통해 미래의 신성장 동력 산업을 확보하는 적극적 대응 방안이 필요함

- **기업의 환경보호 유도** : 정부는 기업이 폐기물을 재활용하거나, 친환경 제품이나 기술을 개발할 경우 세금 감면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기업의 환경보호를 적극 유도해야 함

⑦ 인간친화형 제4세대 로봇 혁명의 전개

○ (현상) 20세기 후반, 자동화를 추구하는 산업용 로봇이 주도하던 시대에서 첨단 과학기술이 접목된 서비스 로봇 위주의 시대로 진입하면서 로봇혁명이 전개될 전망

- IFR에 따르면, 2010년까지 약 474만 대의 산업용 로봇과 서비스 로봇 수요가 있을 것으로 전망

- IFR에 따르면, 2006년 말 현재 전 세계적으로 총 95만 대의 산업용 로봇이 운영 중이며, 4만 대의 전문용 서비스 로봇이 사용 중, 3.5백만 대의 개인 및 가정용 서비스 로봇이 판매 됨

< 세계 로봇시장 전망 >

로봇유형	용도	기간	시장규모(대)
산업용 로봇	전기, 전자, 화학, 금속, 식품, 음료 등 산업	2008~2010	1.2백만
서비스 로봇	전문용	군사, 장비, 의료 등	2007~2010
	개인용	청소, 장난감, 교육 등	2007~2010
	장애인용	장애인 보조	2016
			수요 증가

자료 : IFR.

○ (특징) 제4세대 로봇시대에 돌입하면서 개인용 서비스 로봇의 보급 확대와, 로봇의 사회적 활용도 증대, 로봇과 첨단 신기술의 융합이 가속화 되었으며 산업용 로봇이 비약적으로 발전

- 제 4세대 로봇 시대 돌입 : 급격한 기술발전에 따라 21세기에는 인간친화형 제 4대 로봇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릴 것으로 전망

- 1970년대(제1세대) : 센서기술을 도입하여 감지능력을 지닌 용접, 도장, 물류 취급용 로봇 위주
- 1980년대(제2세대) : 대량생산 및 다품종 생산시스템이 갖춰진 생산자동화 라인에 다양한 형태의 로봇 위주
- 1990년대(제3세대) : 이동기능, 센서기능, 지적 기능 등을 지닌 지식기반 로봇이 등장
- 21세기(제4세대) : 서비스 로봇과 인간친화형 로봇의 개발이 활발하게 진행

- **개인용 서비스 로봇 보급 확대** : 독신가정 증대, 고령화 등에 의해 청소, 심부름, 엔터테인먼트 등 개인용 서비스 로봇의 보급이 확대될 전망
 - 청소, 심부름, 경비 등 가정용 로봇으로는 Probotics의 Cye-SR과 산요의 청소로봇 등이 대표적임
 - 애완, 엔터테인먼트, 교육용 로봇으로는 Sony의 AIBO, Robofactory의 Hairy, NEC의 BN-1 등이 있음
 - **로봇의 사회적 활용도 증대** : 사회복지 수요증대에 따라 의료, 장애인 보조 등의 기능을 하는 로봇보급이 진행될 것임
 - 장애인 보조용, 간병인, 의료용 로봇으로는 Pyxis의 Helpmate, 가와사키의 리하메이드 마이오렛, 마쯔시타전공의 마사지 체어 등이 있음
 - 인간의 운동성을 보조하고 지능이 중시되는 휴머노이드 로봇의 대표주자는 Sony의 SDR 시리즈, 후지쯔의 HOAP-1, 화세다대의 WABOT 등이 있음
 - **로봇과 첨단 신기술 융합 가속** :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IT, BT, NT, ST 등의 첨단기술과 융합하여 새로운 용도의 로봇 등장이 가속화 될 것임
 - IT(정보기술), ST(우주항공기술) 등과 융합하여 무인전투기, 무인 우주탐사선 등이 출현
 - BT(생명과학), NT(초정밀 나노기술) 등과 융합, 의료용 마이크로 로봇 탄생
 - **산업용 로봇의 비약적 발전** : 산업용 로봇의 활용영역 확대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에서의 수요확대로 새로운 비약의 전기가 마련될 것임
 - 메카트로닉스로 지칭되는 산업용 로봇은 전통적인 활용 분야인 전기/전자 산업에서 화학, 금속 등 거의 모든 산업 분야로 확산
 - 산업용 로봇은 세계의 주요 생산기지가 된 개발도상국들의 공장자동화 수요에 힘입어 그 발전이 더욱 주목됨
- (시사점) 차세대 성장 동력인 로봇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기업과 정부의 공동된 노력이 필요함
- **정부** : 정부조달을 통해 시장을 조성함으로써 로봇산업에 대한 기업들의 적극적인 투자를 유도하고 로봇산업에 관한 표준화된 규약 마련 등 제도적인 보완 장치 마련이 시급
 - **기업** : 우수인력 유치와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하여 기술경쟁력 확보에 주력하는 한편 로봇 비즈니스를 통한 새로운 수익원 창출 노력이 필요

⑧ 우주시대의 본격 개막

○ (현황) 기존 강대국에 아시아 신흥국가들이 진입하면서 우주개발의 춘추 전국시대가 개막되고, 민간기업 참여 경우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임

○ (특징) 민간협동모델을 통한 우주개발 기술의 진보로 국가 간 미래 에너지원 확보경쟁이 본격화될 것이며, 민간주도의 新Gold-rush 현상 등이 기대됨

- 우주개발을 통한 지구자원 대체 미래 에너지원 확보 경쟁이 심화될 것임

- 2004년 미국의 조지 부시대통령은 달 표면의 광물을 채집해 연료로 활용하기 위해 2024년까지 달에 영구 유인 우주기지를 건설하겠다고 발표함
- 러시아도 新우주왕복선(2014년) 개발을 통해 2025년까지 달에 우주인을 보내고, 2032년 까지 달 표면에 화성탐사를 위한 영구기지를 건설할 계획임
- 유럽도 유럽우주개발기구(ESA)를 통해 화성에 유인우주선을 보내고(2025년), 태양계의 모든 위성에 유인우주선을 보내는(2033년) 계획을 진행함
- 중국은 2007년 10월, 최초의 달 탐사위성 '창어 1호'를 발사하고, 화성탐사선(2009년)과 달 표면 탐사(2012년)등을 점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임
- 일본은 1999년 시작된 우주개발 프로젝트에 따라 달 탐사활동을 벌일 '셀레네 2호'를 2010년대에 발사하기 위해 계속 정찰위성을 배치하고 있음
- 인도는 올 4월 첫 상용위성 발사에 성공한 뒤, 1년 내 우주 탐사선 발사와 2010~2011년까지 달 표면을 탐사할 '찬드라얀 2호'를 발사할 예정임
- 이에 한국도 달 탐사위성(2020년)과 달 탐사 착륙선(2025년) 개발을 목표로 우주개발 로드맵을 발표하고 전남 고흥군에 나노 우주센터를 건축 중임

- 정부와의 민간 기업들이 역할을 분리해 우주개발에 공동으로 참여하는 민간 협동모델의 진전할 것임

- 일본의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는 시설이용과 안전관리를 담당하고 미쓰비시 중공업, 마쓰시타전기 등이 소형위성 및 로켓을 개발 중임
- 미국 X Prize 재단과 구글은 가장 먼저 달에 착륙해 주변 50미터 지역탐사 후, 달 표면 동영상상을 전송하는 팀에게 거금을 지급하는 이벤트를 발표함

- 우주개발에 필요한 로켓, 로봇공학, 생명유지 기술들이 민간 기업들의 지속적인 투자로 급속도로 발전할 것임
 - 군수 및 비행기 제조사의 지속적인 투자로 로켓기술이 급속히 발전하고 있고, 우주탐험과 자원채취에 필요한 로봇도 로봇산업에서 발전 중임
 - 장거리 우주체류와 화성 등 타 행성의 식민지화를 가능하게 하는 통신과 생명유지기술이 각각 민간 통신기업과 생명공학 기업에서 발전하고 있음

- 우주개발을 통한 미래 에너지원 확보 경쟁이 민간기업 주도하에 이루어지면서 민간주도의 新Gold-rush 현상이 발생할 것임
 - 막대한 부를 창출한 개인과 기업들이 우주를 돈벌이 장소로 인식하면서 관련 기술에 대한 투자와 참여가 늘어날 것임
 - 각국 정부는 점차 개발주체에서 벗어나 우주와 우주 식민지 통치를 위한 법률제정 등 질서유지를 위한 관리자, 지원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할 것임

- (시사점) 자원의 고갈로 인한 미래에너지 확보가 국력과 국가존망을 결정할 것임으로 우주산업 육성에 국가와 기업은 역량을 집중해야함
 - 정부는 우주개발에 필요한 기술들의 통합화 과정에 주력해야함
 - 우주산업은 로봇, 로켓, 통신, 생명공학 등 다양한 기술과 학문이 요구되나, 기업에게는 통합능력이 부족함으로 정부가 이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임

 - 기업들은 각 전문분야의 우주개발 관련기술의 집중육성을 통해 기업 경쟁력 확보에 주력할 필요가 있음
 - 각 기업들은 로켓, 로봇 등 우주개발 분야 중 전문분야를 신성장 산업으로 선정하고,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 인재 및 기술 축적에 주력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아폴로 달 착륙프로젝트를 통해 미국이 3,000여건의 특허와 1,300여건의 실용화를 이룬 것처럼 관련기술 선점으로 경쟁력을 확보해야 할 것임

4) 경영

⑨ 新소비문화의 등장

○ (현상) 과시적 소비, 모든 상품의 명품화, 환경 친화성, 찰나(刹那)적인 소비행태, 디지털공간에서 만들어본 창작물의 실현 그리고 촌각(寸刻)까지 이용한 시장차별화 등의 새로운 소비문화가 확산될 것임

- 전 세계적인 경제성장의 지속으로 중산층의 폭발적인 증가, 환경위기에 대한 경각심 확산 그리고 IT산업의 발달 등이 주요 원인

○ (특징) 과시적 소비, 모든 상품의 명품화, 찰나의 소비문화 등 다양한 新 소비문화가 등장할 것임

- 과시적 소비 (conspicuous consumption) : 전 세계인들에게 자신들의 부와 지위를 소비를 통해 적극적으로 표출하고자 하는 소비행태 확산

· 세계경제의 성장, 소비 가능 재화와 서비스의 폭발적인 증가로 이전에는 소수 국가의 소수 소비자들에게만 가능했던 자신들의 부와 지위를 소비를 통해 표출하는 '과시적 소비(conspicuous consumption)'가 세계 대다수 국가들의 많은 국민들에게도 가능하게 됨

· 전 세계적으로 페레가모, 구찌 등 명품에 대한 수요 급격히 증가

- 모든 상품의 명품화 (Premiumization) : '과시적 소비'의 확산과 더불어 일반 제품에서도 명품을 찾고자하는 소비심리는 전 제품의 명품화를 촉진

· 과시적 소비문화의 확산은 소비자들에게 스스로를 다른 소비자들과 구별 짓는 새로운 방법을 지속적으로 찾게 만들며 이는 과시적 소비를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그렇지 않은 상품들까지도 고급화를 추구케 하는 일종의 모든 상품에서의 명품화를 촉진

· 비싼 값의 Fiji 생수의 성공, 포르투갈의 제지회사인 Renova는 고급 화장실 용 화장지인 Renova Black의 판매시작

- '환경 친화성', 또 다른 상징 (Eco-Iconic) : 환경 친화적인 제품의 소비가 다른 일반 소비자들로부터 해당 소비자를 구분 짓는 또 다른 상징으로 작용

· 지구온난화의 가속화와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 증가로 소비자들은 환경 친화적인 제품 소비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더욱 바람직하고 생각하고 소비행동을 통해 이를 표출하게 됨에 따라 '환경 친화성'은 일종의 새로운 신분과 부를 과시하는 상징으로 정착

· 할리우드 스타들의 도요타 자동차의 하이브리드 자동차 이용 유행

- ‘찰나(刹那)’의 소비문화 (Snack Culture) : 소비자들의 상품에 대한 충성심이 유지되는 시간이 전 영역에 걸쳐 줄어들음
 - 재화나 서비스를 즐기는 소비 시간이 갈수록 짧아짐에 따라 기업은 소비자가 상품을 충분히 소화할 수 있도록 작은 조각들 형태로 만들고 가능하면 더 자주 더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전환하려고 노력
 - 크라이슬러에서 개발하여 독일과 프랑스에 있는 공장에서 생산하는 저렴한 가격의 깜찍한 디자인을 한 2인승 소형 자동차 Smart For two는 1998년 이래 세계 36개국에서 약 80만대 정도가 팔림
- 디지털 창조물의 현실화 (Make It Yourself) : 컴퓨터를 이용하여 디지털 공간에서 만들어 본 창작물을 현실에서도 만들어 보고자 하는 욕구가 증가
 - 디지털 공간에서 마음껏 상상력을 발휘하여 갖가지 것들을 창조해보던 사람들이 더 이상 이를 디지털 세상에만 남겨두지 않고 현실에서 만져보고 실제로 사용하려는 욕구가 증대함에 따라 이에 부응하는 기업이 성장
 - 미국 Desktop Factory사의 개인용 3차원 프린터는 현재 4,995달러의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지만 앞으로 조만간 크게 인하될 것으로 전망
- 촌각(寸刻)에 의한 시장차별화 (On-demand Economy) : 인터넷과 IT 산업의 발달은 소비자의 수요를 분이나 초 단위로도 나누어 구별하고 이에 맞춘 다양한 가격의 서비스 제공을 가능케 함
 - 인터넷과 IT의 발달은 지금까지 연령, 날짜, 시간 등에 따라 구분하던 소비자의 수요를 분이나 초 단위로도 구별할 수 있는 길을 터주었으며 기업은 이에 적합한 재화와 서비스를 ‘개별 수요에 맞추어(on-demand)’ 다양한 가격에 공급함으로써 효율성 향상과 이윤 제고를 성취
 - 영국의 철도와 항공기들은 가격보다 시간을 더 중시하는 고객과 시간보다 가격을 더 중시하는 고객을 구별하여 같은 서비스에 대해 다른 가격의 기차표나 항공권을 판매함으로써 모두에게 약속된 서비스를 제공

○ 시사점

- 명품화 : 기업은 더 이상 값 싸고 좋은 상품을 만드는데 머물지 말고 이를 명품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
- 생산기술의 빠른 진화 : 다품종 소량의 작은 상품들을 만들어야 할 뿐만 아니라 이를 빠르게 진화시킬 수 있는 생산방법을 도입
- 디지털 세상의 실현 : 3차원 프린터와 필요한 원재료의 개발 등은 블루오션
- 세밀한 시장차별화 : 기업은 소비자들의 기호를 세밀히 구별하여 각각의 시장을 차별할 수 있는 능력과 전략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

⑩ Long Jump 전략의 확산

○ (개요) 기업들의 신성장동력 발굴과 신사업 확장 전략이 기존사업과 연관이 많은 지근거리 위주의 Local Jump 전략에서 기존 사업과 연관이 적거나 전혀 없는 원거리 위주의 Long Jump 전략으로 변화하고 있음

- 지금까지는 기업들이 신사업을 발굴하거나 확장할 때 산업군내 가치체인 상에서 수직적 통합이나 수평적 확대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보편적이었으나 이제는 타 산업군의 가치체인을 넘나들며 신사업을 발굴하고 있음

· 기존 전자산업 : 전자산업의 경우 생활가전, 반도체, 디스플레이, 휴대폰 등 전자산업군내의 가치체인에서 제품 다양화와 소재개발로 발전해 왔으며 전자기술(電子技術, Electronic Technology)의 범주를 벗어나지 않았음

· 미래 전자산업 : 미래 전자산업은 로봇의 나노기술(NT), 헬스케어의 바이오기술(BT), 태양전지의 에너지기술(ET)등 전자기술의 범주를 벗어나 비(非)전자기술과 통합하여 신사업영역이 확장되고 있음

○ (특징) 기존 산업의 경쟁 포화로 완전히 새로운 사업의 필요성 확대, 사업간 경계의 약화와 결합사업의 등장, M&A 활성화 등으로 Long Jump 전략은 더욱 확대 되고 기업 성장의 필수요건이 될 것임

- 기존 산업의 경쟁 포화 : 기존 산업의 경쟁이 극심해 지면서 업종별 3위 이하의 기업은 성장이 어려워지는 경영환경의 변화로 완전히 새로운 신사업을 찾기 위한 Long Jump는 기업 생존을 위한 보편적인 현상이 될 것임

- 사업간 경계의 약화와 결합사업의 등장 :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사업간 경계가 약화되고, 방송과 통신, 자동차와 전자, 금융과 유통처럼 이종 사업간의 물리적 거리가 가까워지면서 전보다 Long Jump가 수월해 지고 있음

- M&A의 활성화 : 비용절감과 시너지 창출이라는 대명제 하에서 M&A가 더욱 활성화 되는 것도 기업들의 기존기업이나 발판기업 인수를 촉진시켜서 원거리 산업으로의 진입을 더욱 수월하게 하고 있음

- **Long Jump의 보편화** : 일찍부터 과감한 Long Jump를 통해 고성장을 이루었던 세계적인 일류기업들의 Long Jump 선택이 도전과 모험 이었다면, 앞으로 Long Jump는 기업의 생존과 번영을 위한 필수요건이 될 것임
 - 화약기업에서 생활용품 기업으로 변모한 Dupont, 금융에서 자동차로 변모한 Toyota, 전자/금융에서 환경으로 주력을 바꾼 GE 등은 일찍부터 블루오션을 찾아 Long Jump 전략을 시행했다는 공통점이 있음
 - 국내의 경우 두산과 한화가 한발 앞서 신사업을 향한 Long Jump에 성공하고 삼성전자 등 일류기업이 신사업 발굴에서 Long Jump 전략을 강화하고 있는 것처럼 기업들의 Long Jump 전략 선택은 더욱 확대 될 것임
- **유망 미래 사업군의 수렴** : 미래 사업으로 친환경·에너지 등이 촉망받으면서 다양한 배경의 기업들이 기존 사업 영역과 관계없이 친환경·에너지 사업 진출을 준비하는 사례에서도 Long Jump 전략의 확산을 예견할 수 있음

< 국내 기업들의 Long Jump 사례 >

기업	기존 주력사업	신성장동력 / 신사업
포스코	철강	발전용 연료전지사업
현대중공업	조선	태양광에너지 발전사업
대우자동차판매	건설·자동차판매	의약 및 정보기술 사업(검토중)
LG전자	가전·휴대폰·TV	태양전지 사업(검토중)
대한전선	광케이블·리조트	신약개발 사업
삼성전자	반도체·휴대폰·LCD	U-헬스, BIT(BT+IT), 태양전지

- (시사점) 기업은 Long Jump가 미래 성장을 담보하는 필수 경영 전략임을 인식하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되, 철저한 사전준비와 리스크 관리로 새로운 분야 진출에서의 시행착오를 최소화 하여야 함
 - 이제 기존의 전문성과 연관성에 집착하는 전략으로는 기업의 성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무게중심을 미래성에 맞추고 신사업을 위한 Long Jump 전략을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함
 - 기업 입장에서 Long Jump는 기존 사업과 연관성이 적은 새로운 분야로의 진출이므로 철저한 분석을 통한 진입과 일관된 실행이 필요하며 리스크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야 함

3. 시사점 및 대응 방안

- 2008년 예상되는 해외 10대 트렌드는 정부와 기업 모두에게 위협 요인이자 기회 요인이 될 것으로 전망됨
 - 위협 요인 : 유동성 패러독스와 달러화 위상의 약화, 제3의 전쟁 가열, Green Economy 확장은 한국 사회와 기업에게 위협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 기회 요인 : 글로벌 뉴리더십의 대두, 동북아의 새로운 질서 구축, Great Circle, 로봇혁명의 전개, 우주시대의 전개, 新소비문화의 등장, Long Jump 전략의 확산은 기회 요인으로 작용할 것임
- 따라서 2008년 예상되는 해외 10대 트렌드에 대응하여 정부와 기업은 부정적 영향을 극복하는 한편,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임

1) 정책적 시사점

- 북한의 동북아 경제권 편입을 위한 동북아 국가의 적극적인 다자 협력 방안 모색이 필요
 - 북한을 동북아 경제 협력 체제 속으로 유도하기 위한 중국, 일본, 러시아, 한국의 공동 협력 체제 구축이 시급
 - 아울러 동북아 평화체제를 바탕으로 경제 협력 활성화를 위한 한국, 북한, 중국, 일본, 러시아의 다자간 협력 체제 기반을 마련해야 함
- 對중동 경제 협력 강화 전략의 추진

- 정부는 대중동 통상 확대를 위해 GCC(페르시아만안협력회의; Gulf Cooperation Council)국가들과의 FTA 체결 등 적극적인 경제 협력 강화 전략을 추진해야 함

○ 아시아권 국가들과의 통화 협력 강화

- 달러화 약세와 환율 변동성 리스크 축소를 위해 동아시아 역내 통화협의기구를 구축하고 참여국간 거시 경제정책 및 통화정책 조정 등을 통해 동아시아 국가간 통화 바스켓 제도를 구성하는 방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한편, 외환 보유고 및 무역결제통화의 다변화 등도 병행 추진되어야 함

○ 국가 안보 차원의 중장기 에너지 자원 확보 전략이 마련되어야 함

- 자원외교 강화로 에너지 공급의 안정화를 도모하고 적극적인 해외유전 개발 및 확보 전략 추진을 통해 중장기 에너지 자원 확보에 힘써야 함
- 또, IT 산업, 서비스업, 관광업과 같이 굴뚝 없는 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육성 과 에너지 절감에 대한 인센티브제도 도입 등 새로운 에너지 절약 전략이 마련되어야 함

○ 로봇, 우주개발 등 새로운 산업 발전의 기반을 확고히 해야 함

- 로봇의 경우는 정부의 사회복지 전략 차원에서 조달 시장을 확대하거나 표준화된 규약 마련 등 발전 기반의 확충이 필요함
- 우주개발의 경우는 새로운 성장 분야로 선정, 정부와 민간의 파트너십 강화나 로켓 산업의 집중 육성 등 성장 전략을 시급히 구축해야 함

2) 기업의 대응 방안

○ 고부가가치 분야를 중심으로 한 해외 시장 진출 전략을 추진해야 함

- 신흥개도국들을 중심으로 중산층이 급증하고 있어 이들 지역의 진출에 있어서는 고부가가치 상품을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축하여 중상류 소비 계층 중심의 내수 시장 공략이 필요함

○ 둘째 환리스크 대응 전략 마련이 시급함

- 기업은 원화 가치 상승에 따른 환위험 리스크를 축소시키기 위해 결제 통화의 다변화, 시장을 통한 적극적인 환위험 헤지 방안을 수립해야 함

○ 미국 경기 둔화와 달러화 약세와 같은 해외 여건 악화에 대비한 전사적인 리스크 관리 노력이 필요

- 전사적인 리스크 관리 대책 수립 및 점검, 원가 관리 시스템 구축, 전사적인 비용 절감 캠페인 실시, 장기 계약 확대 등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

○ 넷째 광범위한 신수종 사업 발굴 노력이 구체적으로 실현되어야 함

- 새로운 산업 및 소비트렌드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통해 유망 신사업 분야를 발굴하고, 이를 적극 추진할 수 있는 기업 내부 환경 조성이 이루어져야 함
- 특히, 유망한 미래 사업군들의 수렴화 현상이 진행되고 있고 사업간 경계가 약화되는 등 신수종 사업 진출 환경이 급변하고 있어 원거리 산업에 진출하는 Long Jump 전략을 충분히 활용해야 할 것임

산업전략본부 (3669-4032, bkyoo@hri.co.kr)

주간 경제 동향

□ 실물 동향 : 11월 산업생산 견조한 증가세

○ 11월 중 산업생산은 광공업과 서비스업 생산이 전년동월대비 각각 10.8%, 7.8% 증가하는 등 견조한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음

- 반도체, 화학제품 등의 수출호조에 힘입어 광공업 생산이 활기를 띠었으며, 서비스업생산도 의료업, 금융·보험업 등의 호조로 전년동월대비 7.8% 증가하여 9~10월 평균(6.3%)보다 증가율이 확대되었음
- 설비투자도 운수장비, 반도체장비 등을 중심으로 전년동월대비 3.9% 증가하여 3/4분기(-1.9%)의 부진에서 벗어나는 모습을 나타내었음
- 현재 경기상황을 나타내주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지난 달과 동일한 수준을 나타내었으며, 향후의 경기국면 예고지표인 선행지수 전년동월비는 건설수주액, 기계수주액 등 8개 지표가 증가하여 전월대비 0.3%p 상승하였음

< 주요 실물 경제 지표 >

(전년동기대비, %)

	2005	2006		2007							
		연간	3/4	4/4	1/4	2/4	3/4	10월	11월		
경기	경제성장률	4.2	5.0	4.8(1.2)	4.0(0.9)	4.0(0.9)	5.0(1.8)	5.2(1.4)	-	-	
	수요	소비재판매	4.1	4.7	2.9	4.5	7.1	5.3	8.5	8.4	5.9
		설비투자추계	6.3	7.4	11.8	5.1	11.3	12.1	-1.9	3.3	3.9
		건설수주	7.3	9.0	37.1	27.1	26.3	26.3	-5.6	104.7	36.3
		수출	12.0	14.4	16.3	13.8	14.7	14.1	9.5	23.1	17.5
	공급	광공업생산	6.3	10.1	11.3	5.2	3.3	7.0	8.3	18.2	10.8
		취업지수 (만명)	2,286	2,315	2,331	2,330	2,284	2,370	2,361	2,375	2,374
		실업률 (%)	3.7	3.5	3.3	3.2	3.6	3.2	3.1	3.0	3.0
		수입	16.4	18.4	21.1	13.0	13.4	14.5	7.2	27.3	26.5
	대외 거래	경상수지(억\$)	166	61	4	61	-17	0.3	45	25	18
무역수지(억\$)		232	161	25	75	24	52	46	19	21	
물가	소비자물가	2.8	2.2	2.5	2.2	2.1	2.4	2.3	3.0	3.5	
	생산자물가	2.1	2.3	3.1	2.0	1.8	2.5	2.7	3.4	4.4	
	생산자물가	3.9	4.8	5.8	1.8	2.1	3.3	2.5	7.8	12.0	
	최종재물가	0.3	0.5	0.6	0.4	0.3	1.1	0.6	1.6	2.9	

주 : 경제성장률의 ()안은 계절조정 전기비 기준, 진한 글자체는 최근 발표된 경제 지표임

□ 금융 동향 : 미국 신용경색 우려감 지속

○ (해외 금융 시장) 달러화, 엔화에 대한 약세

- **금리**: 미국 12월 ISM 제조업 지수의 예상치 하회 및 미국 경제의 성장 둔화 우려 등에 따른 FRB의 금리 인하 기대 영향으로 전주말 대비 크게 하락 (국채 10년물 : 4.07→3.89%)
- **환율**: 달러화는 미국의 경기둔화에 따르는 연방은행의 추가적인 금리 인하 기대 등의 영향으로 유로화 및 엔화에 대해 약세 시현 (\$/€ : 1.4724→1.4750, ¥/\$: 112.3→109.3)

○ (국내 금융 시장) 대외 요인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 지속

- **주가**: 미국 경제 둔화 우려에 따른 미 증시 등 해외증시 하락으로 투자심리가 위축되면서 전주말 대비 하락 (1,897.1→1,863.9)
- **금리**: 국제 유가 급등에 따른 인플레이션 압력이 지속되는 가운데 CD금리의 상승세가 지속, 12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전년동기 대비 3.6% 상승 등의 영향으로 전주말 대비 상승 (국고채 3년 수익률, 5.74→5.83%)
- **환율**: 증공업체의 선박 수주 소식과 수출업체의 달러화 환전 수요 등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신용경색 지속 우려감이 확산되면서 역외세력 등의 달러화 매수세에 힘입어 전주말 대비 소폭 상승(936.1→938.6원)

○ (전망) 대외 불안 요인 상존으로 금융시장 혼조 전망

< 주요 금융 지표 >

		2006		2007				2008	
		3/4	4/4	1/4	2/4	3/4	4/4	12.28	1.4 ¹⁾
국내	거래소 주가	1,371.4	1,434.5	1,452.5	1,743.6	1,946.5	1,897.1	1,897.1	1,863.9
	국고채3년(%)	4.57	4.92	4.76	5.26	5.46	5.74	5.74	5.83
	원/달러	946.2	929.8	940.9	923.8	915.1	936.1	936.1	938.6
해외	DOW	11,679	12,463	12,354	13,409	13,896	13,265	13,366	13,518
	Nikkei	16,128	17,226	17,288	18,138	16,786	15,308	15,308	15,537
	미국채10년(%)	4.63	4.70	4.57	5.02	4.59	4.02	4.07	4.20
	일본채10년(%)	1.68	1.69	1.60	1.88	1.69	1.51	1.46	1.52
	달러/유로	1.2674	1.3199	1.3354	1.3542	1.4267	1.4593	1.4724	1.4634
	엔/달러	118.18	119.07	117.83	123.18	114.80	111.65	112.29	112.22
	두바이(\$/바렐)	57.33	56.71	63.12	66.42	76.64	89.06	89.06	92.37

주 : 1) 해외지표는 전일(1.3) 기준